

제 목	‘지나침없는 안전교육’의 실제 사례
<p>어린이집 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내 눈 한구석에 아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는 것이다. 우리의 시선은 찰나의 순간으로 이어질 사고를 막으려는 눈빛으로 늘 살피고 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지속적인 안전교육으로 얻게 된 지식과 행동력이다. 내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이 사실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 한 사건이 있었다.</p> <p>그날 어린이집 아이들은 모두 하원했고 남은 마지막 한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온 때였다. 아이의 이름은 민후였고 이제 14개월이 된 귀여운 재롱둥이였다. 나는 민후를 품에 안은 어머니와 함께 정다운 담소를 나눈 뒤에 손을 씻고 싶다는 그녀를 화장실로 안내했고 아이의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내려놓은 뒤 바닥에 앉아 있던 민후가 체크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 이상함에 다급히 다가가 확인한 나는 경악하고야 말았다. 아이의 작은 얼굴이 온통 새까만 낮빛으로, 아주 오래된 녹이 슨 듯한 빛깔로 물들어 있었고 입술은 새파란 청록색이었다. 게다가 두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크게 뜨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너무 놀랍고 당혹스러웠으며 또 무섭기까지 했다. 그리고 바로 알 수 있었다. 목에 이물질이 걸려 기도가 막혀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 생각들은 찰나였고 곧바로 하임리히법을 적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났다. 매년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배운 어린이집 종사자 안전교육에서의 그 모든 내용이, 신기하리만치 순서대로 생각이 났다. ‘그래, 우리 민후는 어린 영아야. 그럼 뒤에서 겨안아 각지를 끼는 응급처치는 할 수 없어. 영아는 간이 커서 손상이 올 수 있으니 복부압박을 하지 않아.’ 손과 몸은 재빨랐고 머릿속에서는 e-러닝에서 본 강사의 모션들이 파모라마처럼 펼쳐졌다. 나는 먼저 몸을 고정할 의자에 앉아 한 쪽 다리를 쪽 폈다. 그리고 나의 허벅지에 민후를 앞드리게 한 뒤 팔과 다리로 고정된 다음, 강하게 밀어 올리듯 등을 세차게 쳐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등을 쳐냈을 때 아이의 입에서 뭔가가 멀리 튀어 나갔다. 다가가 확인해 보니, 그것은 커다란 청포도 알사탕이었다. 알사탕이 입에서 튀어 나가자 그 순간 아이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그것을 확인한 나도, 이제 아이가 살았다는 안도감과 휘몰아치던 긴장감의 해소 때문인지 함께 영영 소리내어 울고 말았다.</p> <p>그때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민후 어머니가 우리 둘의 상태를 보시고 놀라 무슨 일인지를 물으시는데.. 너무 놀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눈물을 닦고 상황을 설명드리자 민후 어머니께선 아연실색한 얼굴로 사건의 발단을 이야기해</p>	

주셨다. 어린이집에 들어서서 민후를 반갑게 안은 후에 손을 씻으러 가려는데 아이가 울까 봐 품에서 입에 사탕을 물려주고 화장실에 다녀온 것이라는 말 씀이었다. 그 잠깐의 순간 동안 얼마나 큰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날의 나는 소중한 아이를 살렸다. 보육교사로 해마다 받은 안전교육이 그날, 한 생명을 살려냈다. 매년 받은 교육이 쌓이고 기억하니 실력이 되었고, 꼭 필요한 그 순간 배움이 지식이 되어 하임리히법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며 각자의 자리와 상황 가운데 저마다 한 번씩 과정을 통해 큰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된다. 나는 이 큰 경험을 통해 또 한 번 성장했다. 그 위험한 순간에 적용된 정확한 판단과 행동요령은 나 자신이 보육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갖게 된 순간으로 기억되었으니 말이다. 이것은 아이를 지키는데 머무르지 않는다, 어린이집과 나..나 자신을 지키기까지 했다.

특히 안전교육의 실습 중에 어른과 영아로 구분하여 받았던 처치 방법은 실제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짧은 순간, 생각할 겨를없이 곧바로 기민하게 처치가 이루어져야하는 상황 속에 값진 교육의 진가가 발휘된다.

나는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 깨끗한 보육환경과 안전한 어른들의 곁에서 하늘의 별처럼 달처럼..의미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이 아이들의 자신감 넘치는 웃음과 놀이의 힘이 보이지 않는 무명 같을지라도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톡톡히 제 역할을 해 낼 것을 우리 어른들은 다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보육교사인 게 좋다. 우리 어린이집이 좋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아이들의 미소를 생각한다. 더 많이 업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 주고 싶다.